

# 삶의 갈피마다 찾아드는 '맛난' 만남

## 옛사람의 육성과 만나는 즐거움

정민

한양대 교수·국문학

위나라 상림(常林)은 발을 갈면서도 책을 읽었다. 당나라의 이밀(李密)은 쇠뿔에 《한서(漢書)》를 걸어 놓고, 풀을 먹이면서도 잠시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남의 양을 치다가 책에 몰두하느라 그만 양을 모두 잃고 만 것은 왕육(王育)이다. 가혹한 독서광들의 이야기이다. 후한의 고봉(高鳳)은 아내가 장보러 간 사이 마당에 널어놓은 걸보리가 소나기에 다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책만 읽었다. 그의 아내가 돌아와 발을 동동 굴렀음은 물론이다. 소진(蘇秦)은 아예 상투를 대들보에 묶어 놓고 책을 읽었다. 그의 독서는 자못 비장한 데가 있다.

### 좋은 밤 책과 마주하면

좋은 밤 고요히 앉아 등불을 켜고 차를 달이면 사방은 고요한데, 책을 마주하고 앉으니 그간의 피로가 말끔히 가셔진다. 책상 앞에 쌓인 책을 흥에 따라 이책 저책 뽑아드노라면,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 들려온다. 처마 밑에서 고드름을 따와 벼루를 씻는다. 이것은 명나라 오종선(吳從先)이 《소창청기(小窓淸記)》에서 말하고 있는 독서하는 즐거움이다. 오늘에 와서 그 태고풍의 맑은 운치를 누릴 수야 없겠지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정신이 상쾌해짐을 느낀다.

사실 나의 독서는 도무지 두서가 없다. 특히 밀린 일이 많아 마음이 스산할 때면 더하다. 연구실 소파에 앉아 손에 잡히는

대로 뽑아 읽는다. 그러다보면 대개는 그저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뒤적이는 기억없는 산책이 되고 만다. 한참을 그러고 나면 머리 속의 미운(迷雲)이 비로소 걷히고, 막혔던 생각의 길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다음은 몇 해 전 일기의 한 도막이다.

“《우연감상사전》을 읽다가 권필의 〈주사장인전(酒肆丈人傳)〉이 생각나 《장자와 중국미학》이란 책을 꺼내 여기저기 카드 작업을 했다. 그러다가 다시 《고문감상사전》을 들추어 보았다. 이화(李華)의 〈조고전장문(弔古戰場文)〉을 읽고, 또 〈유자후묘지명(柳子厚墓誌銘)〉을 읽자니, 요즘 관심을 두었던 연암 박지원의 글이 생각나 그의 〈홍덕보묘지명(洪德保墓誌銘)〉에 대해 쓴 선학의 논문을 읽었다. 읽다 보니 무덤을 도굴하는 선비 이야기가 나오길래 다시 〈호질(虎叱)〉의 북곽선생(北郭先生)을 생각했다.”

뭐 대강 이런 식이다. 방심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불쑥 다가서는 옛사람의 육성과 만나는 것은 즐겁다. 두고두고 음미하고 싶은 구절과 만나면 먹을 갈아 깨끗이 써서 벽에 붙여 둔다. 그 글이 다 외워질 무렵해서 다시 다른 글을 써붙여 둔다. 앉아 그 글과 마주할 때마다 고인의 체취가 함께함을 느낀다.

“미래도 과거와 같다. 역사는 무의미하다. 인생은 우스꽝스럽다.”  
“마을에 가까이 있는 나무는 흠집이 많다.”  
“가슴이 하는 일을 머리가 방해해서는

송상할 벗은 아득한 옛날에만 있지 않고 근엄한 활자에만 있지 않다.  
찾아드는 만남 속에도 있다. 그 벗은 우연히 퍼든 책의 한 면일 수도, 친진한 새의 울음소리일 수도 있다.  
이런 '맛난' 만남이 있어 쓸쓸한 인생이 살아갈 원기를 얻는다.

안된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 나의 비망록에 적힌 메모들이다. 회심의 글귀나 책재의 문장을 만나면 공연히 가슴이 설렌다. 그를 만나보고 싶고, 내 생각을 터놓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진다. 그러면 내 마음을 알아 줄 것만 같다.

명나라의 이어(李漁)는 《한정우기(閑情偶寄)》에서 이렇게 말한다.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일이다. 다만 게으른 사람은 언제나 이를 괴롭게 여긴다. 맑고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적막함을 병통으로 여긴다. 괴로움을 버려 즐거움에 나아가고, 적막함을 괴해 편안함을 누리자면 고상한

사람과 더불어 노닐거나 문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이러한 경계를 두고 옛 시인은, “그대와 함께 나는 하루저녁 대화가 십년간의 독서보다 외려 낫구려. (與君一夕話 勝讀十年書)”라고 회심의 벗과 만난 기쁨을 노래하였다. 대체 십년의 독서와 맛바꿀 하루저녁의 대화란 얼마나 개운한 것이었을까.

“죽원(竹院) 지나던 길 스님 만나 담화하니/똥 인생이 반나절의 한가로움 얻었네.” (因過竹院逢僧話 又得浮生半日閑)

이 또한 예기치 않은 만남이 가져다준 잔잔한 기쁨을 구가한 것이다. 부질없는 인생에서 기약 없이 누린 이 반나절의 한가로움이야말로 그간의 누적된 피로를 일거에 씻어줄 청량제가 아니겠는가?

### 옛길 따라 고인을 벗 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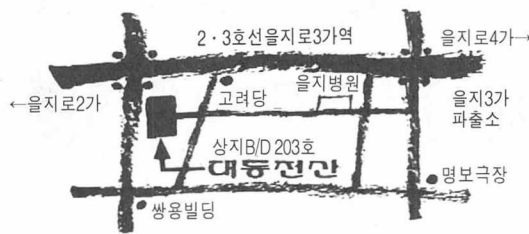
그러나 어찌하리. 내게서 괴로움을 건어가고 쓸쓸한 인생의 적막을 덜어줄 고사(高士)나 회심의 벗은 둘러봐도 쉬 만날 수가 없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무연히 책을 펼쳐들밖에 다른 길이 없다. ‘상우천고(尚友千古)’ 했거니 곁에 마음 나눌 벗이 없으며 옛길을 따라 고인을 벗삼자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푸른 나무 그늘진 뜰에서 이따금 새가 지저귐다. 부채를 들어 책상을 치며 외쳐 말하기를, ‘이것은

# 아래아 한글 (IBM PC) 출력센터

- F1 필름, 인화지, 레이저 프린트 출력
- F2 PC로 작업한 데이터 편집출력
- F3 입력, 편집대행, 교육지원
- F4 다양한서체, 최대한자 및 고어지원
- F5 MS-WORD, 훈민정음 등

**신속 · 정확**  
**(일본어 조판전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26 상지B/D 203호  
전화번호 : 275-0196 ~ 7,  
265-9271 275-7143

팩 스 : 275-7145 천리안 · 하이텔 : SOGO0318

♣ 전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을지병원출구

☀ — 24시간출력  
기다려겠습니다!

**대동전만**

**“좋은 출력  
좋은 책!”**

# 미술가의 창에 비친 '자연'

에버빌 출판사의 '하우 아티스트' 시리즈

장익순 · 출판기획가

내 날아가고 날아오는 글자(飛去飛來之字)이고, 서로 울고 서로 화답하는 글(相鳴相和之書)이로다' 하였다. 오색 채색을 문장이라 한다면 문장으로 이보다 나은 것은 없을 것이다. 오늘 나는 책을 읽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의 문호 연암 박지원의 독서이다. 아침에 들창을 열면 뜰에는 짹짹거리는 새소리에 맑은 햇살이 눈에 부시다. 연암은 그 소리를 듣다가 어느새 가슴 한가득히 안겨오는 기쁨을 맛보았다. 하여 마침내 저도 몰래 들었던 부채로 책상을 탁 치며 "오늘 나는 책을 읽었다"는 일성을 토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숭상할 만한 벗은 아득한 옛날에만 있지 않고, 근엄한 활자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숲의 갈피마다에서 불시에 느닷없이 찾아드는 만남 속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벗은 가던 길에 만난 스님일 수도, 우연히 퍼든 책의 한 면이기도, 아니면 아침 트라에서 만난 친진한 새의 울음소리여서도 좋겠다. 이런 '맛난' 만남이 있어 쓸쓸한 인생이 살아갈 원기를 얻는다. ❖



예술가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표현했는지 가르쳐주는 '하우 아티스트' 시리즈.

미국 메디슨 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버빌 출판사는 특히 미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이정표를 제시해 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번에 펴낸 '하우 아티스트'(HOW ARTISTS SEE...) 시리즈 역시 그 전통의 진수를 보여준다. 어린이용 미술 안내서임에도 그 기획력이나 내용의 수준, 편집 디자인의 심미감이 녹록하지 않다.

'하우 아티스트' 시리즈는 제목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예술가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그것을 표현해왔는지 보여주고자 기획한 작품이다. 규격화된 기존의 사고 틀을 미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거나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독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느끼고 안 것을 예술적 차원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획자는 책의 서문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미술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자연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가르친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그의 기획의도를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시리즈는 주제별로 모두 8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권은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매일같이 하는 4가지 소재로 또 나뉘며, 각 소재들은 그 소재를 다룬 각종 미술품 4가지를 통하여 예술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곧 <예술가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에서는 소재별로 남자, 여자, 소년, 소녀로

나누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들이 어떻게 그들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가를 정밀한 사진자료와 질문 형식의 해설로 보여준다.

제2권은 동물(포유동물, 물고기, 새, 파충류)을, 제3권은 날씨(해, 바람, 눈, 비)를, 제4권은 지상의 요소들(물, 불, 공기, 흙)을, 제5권은 대지(숲, 사막, 산, 평원), 제6권은 건물들(집, 가축 우리, 고층건물, 교회당), 제7권은 우주(달, 행성, 유성, 별), 제8권은 예술가들(무용수, 음악가, 배우, 미술가)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18.5×23.0cm 크기에 48쪽이 된 이 시리즈는 4가지로 나눈 소재마다 4개의 미술품을 선택하여 2쪽씩 할애하여 해설한 다음, 학부모와 선생님이 읽어야 할 노트를 부가하고 있으며, 뒤이어 해설 자료로 쓰인 미술품을 그린 유명 예술가들의 전기와 관련 자료들을 정성들여 덧붙여 놓고 있다.

미술교육 전문 컨설턴트인 저자 콜린 캐롤은 주의깊게 해설 자료를 선택하여, 관찰력과 표현력 뿐만 아니라, 고전미술적인 시각에서부터 인상주의·초현실주의·현대 모더니즘에 이르는 변동의 시각적 특성까지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레 미술사적인 이해력까지도 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작은 액자같은 판형과 디자인으로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미술세계를 보여주는, 정말 더할 나위없이 잘된 안내서가 아닐 수 없다. ❖



## HANSON

당사는 국내유수 출판업체와 협력하여 사전류, 학습지, 단행본 및 학술서적등의 완벽한 편집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함께 일할 새 가족을 찾습니다

..... 진정한 프롤기직이 있는 분을 모십니다 .....

1. 모집부분

구분	인원	전공	자격
편집부	남녀 00명	제한 없음	4년제 대졸자 및 동등이상인 자
전산부	남녀 00명	제한 없음	매킨토시편집 가능자 (Quarkpress, 그래픽사용) 경력자 우대

2. 제출서류

이력서 1통(사진첨부 및 연락처 명기)  
자기소개서 1통(경력자는 경력위주)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 제출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1 (중앙빌딩 316호) 한손기획 담당자 앞  
☎: 785-7972~3 FAX: 785-7974

# HANSON — 한손기획